

김세중 연구위원, 김유미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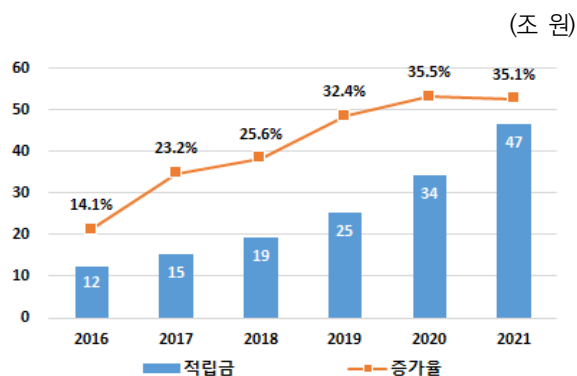
요약

세제적격 개인연금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해 오던 보험업권은 개인형 IRP의 개인연금 시장 대체, 소비자들의 투자형 상품에 대한 선호 확대로 노후소득보장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 시중금리가 크게 상승하고 주식시장이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원리금 보장 상품에 경쟁력이 있는 보험업권의 경쟁력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보험업권은 장기적으로 금융시장 환경 변화, 소비자들의 저축-투자에 대한 태도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이후 개인형 IRP시장에서는 증권업권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보험 및 은행업권 상품과 달리 증권업권의 개인형 IRP상품은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ETF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 수요 확대 요인으로 알려짐

- 개인형 IRP시장은 2015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400만 원에 추가하여 300만 원까지 세제혜택이 부여되면서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주식시장이 급반등한 2020년과 2021년에는 35%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세를 나타냄
- 그러나 업권별 개인형 IRP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증권업권이 2019년 20.0%에서 2021년 26.1%로 점유율이 유일하게 확대되었으며, 같은 기간 은행과 보험업권은 각각 2.5%p, 3.7%p 감소함
- 증권업권의 개인형 IRP상품은 은행 및 보험권과 달리 거래소에 상장된 ETF, ETN, 리츠, 인프라펀드 등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으며, 주식시장 상승기에 이러한 차별성이 소비자들에게 어필했던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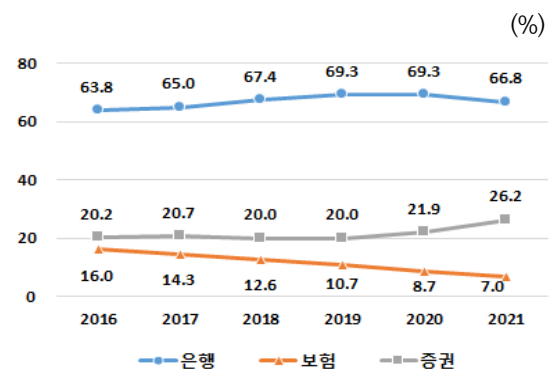
〈그림 1〉 개인형 IRP 규모 추이



주: 전년 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통계

〈그림 2〉 개인형 IRP 업권별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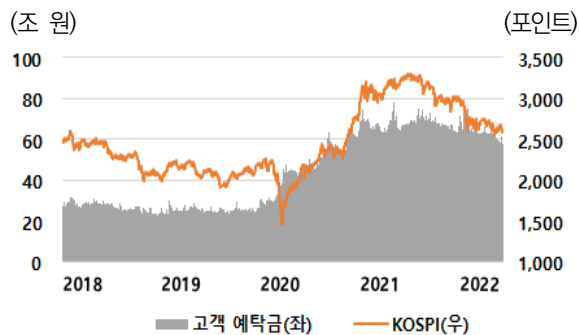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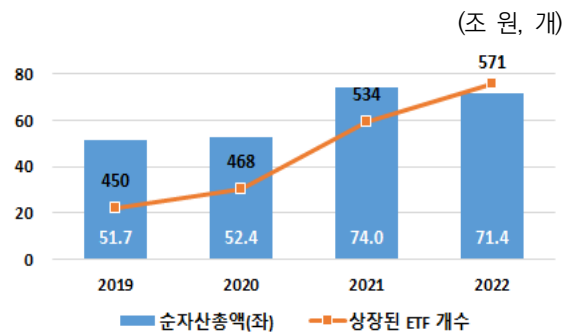
○ 2020년 코로나19 이후 급락했던 주식시장이 크게 반등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투자규모가 확대되었으며, 특히 주식처럼 손쉽게 다양한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ETF(Exchange Traded Fund)시장에 대한 관심이 확대됨

- 2020년 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둔화 우려로 1,500선까지 급락했던 코스피 지수는 2021년 초 3,000포인트를 상회할 정도로 빠르게 반등하였으며, 일반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직접투자자와 간접투자자가 모두 크게 확대됨
- 특히 ETF의 경우 일반 주식처럼 매매가 편리하다고 펀드에 비해 수수료와 운용보수가 낮다는 장점과 특정 지수에 대한 레버리지 및 인버스, 특정 섹터,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해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9년 51조 7천억 원 수준이었던 순자산 총액이 2021년 약 74조 원으로 증가함
 - 국내에 상장된 ETF 수는 2019년 450개에서 2021년 534개로 20% 가까이 증가함
- 2022년에는 주식시장 급락으로 ETF 순자산 총액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다양한 상품이 지속적으로 신규 상장되는 등 ETF투자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림 3〉 주가지수와 고객예탁금 추이



〈그림 4〉 ETF 순자산 총액 및 상장종목 수 추이



○ 한편 세제적격 개인연금 시장은 개인형 IRP와 세제혜택이 유사하기 때문에 두 시장 간에 대체관계가 나타나는 데¹⁾, 개인연금 성장세는 개인형 IRP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며, 개인연금 시장에서도 최근 증권업권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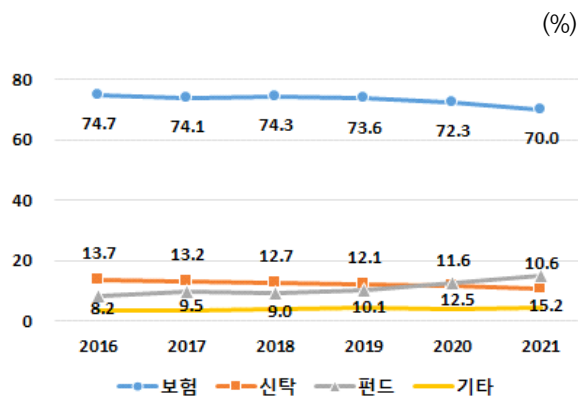
- 은행, 증권, 보험업권 모두 판매가 가능한 세제적격 개인연금 상품은 2018년 이후 은행업권이 신규판매를 중지하면서 현재 증권업권과 보험업권만 신규 판매하고 있으며, 세제혜택 수요를 개인형 IRP상품이 흡수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음
 - 2020년과 2021년 개인연금 시장은 각각 5.8%, 5.5% 성장에 그치면서 개인형 IRP시장에 비해 저성장함
- 개인형 IRP와 달리 개인연금은 전통적으로 보험업권의 비중이 70%대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2019년 73.6%에서 2021년 70.0%로 최근 점유율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음
- 반면 증권업계의 경우 2019년 10.1%의 점유율에서 2021년 15.2%로 점유율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이는 세제적격 연금상품 또한 투자형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결과라 할 수 있음

1) 김세중(2020), 「연금저축시장 부진과 시사점」, 『KIRI리포트』, 보험연구원

○ 세제적격 개인연금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해 오던 보험업권은 개인형 IRP의 개인연금 시장 대체, 투자형 상품에 대한 선호도 확대에 의한 증권업권의 강세로 노후소득보장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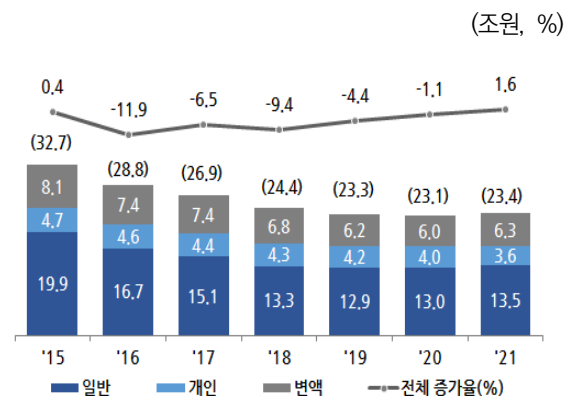
- 생명보험업권의 세제적격 및 세제비적격 연금보험 수입보험료 규모는 2015년 이후 축소되다가 2020년 이후 소폭 증가하였으나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며, 세제적격 연금만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의 경우 신규판매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반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개인형 IRP시장에서는 업권 중 가장 낮은 10% 미만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임

〈그림 5〉 세제적격 개인연금 업권별 점유율 추이



자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통계

〈그림 6〉 생명보험 연금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주: 전년 대비 상승률, 2021년 자료는 전망치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 시중금리가 크게 상승하고 있고 시중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주식시장이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원리금 보장 상품 경쟁력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소비자들의 투자성향 변화가 지속될지에 대해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문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주요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을 야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2022년에만 세 차례 0.25%p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응하고 있음
- 시중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공시기준이율 또한 크게 상승하면서 2022년 7월 현재 2018년 수준인 3.1%까지 상승하였으며, 보험업권의 원리금 상품 금리 경쟁력이 다소 개선되고 있음
- 반면 주식시장은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인해 2022년 들어 큰 폭의 조정을 겪고 있으며, 개인 직접투자 규모 또한 감소하고 있음
- 하지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ETF 자산규모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신상품의 활발한 출시와 주식시장 하락에 대응한 저가 매수세로 인해 증가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소비자들의 투자성향 변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 보험업권은 고령화로 인해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후소득보장 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

비자들의 저축-투자에 대한 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금리가 상승하면서 원리금 보장형 중심의 보험상품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금융시장 환경은 변동할 것이며, 소비자들의 투자상품 선호에 따라 원리금 보장 상품에 대한 수요는 약화될 수 있음
- 한편 코로나19 이후 투자형 상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도 보험회사의 대표적인 투자형 상품인 변액보험은 수익확보를 위한 해지가 크게 증가하면서 크게 성장하지 못했고, 최근 주식시장 조정으로 수입보험료가 크게 감소하는 등 보험업권의 투자형 상품 경쟁력은 매우 낮은 수준임
- 보험산업은 금융시장 환경 변화, 소비자들의 저축-투자에 대한 태도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리금 보장형 상품과 투자형 상품 간의 균형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형 IRP에 대해서도 투자 옵션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